

◆ 제1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안내

1. 출품자격

- 1) 출품자 자격 :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원이며, 한우협회 회원(정회원 중 회비미납자는 출품 제한)
- 2) 출품우 자격
 - 가. 개체식별이 확실한 소 : 바코드 이표가 장착되어 있는 혈통등록우
 - 나. 품 종 : 거세우
 - 다. 생년월일 : 2006년 4월 1일~5월 31일생
 - 라. 생 산 지 : 출품농가 시, 군에서 생산된 등록우로 한정(12회 대회부터 적용)

2. 농가당 입식두수 및 출품두수

- 1) 입식 및 출품두수 : 3두 입식후 최종 2두만 출품(12회 대회 5두 입식, 2두 출품)
- 2) 입식 조사시 개체별 사진촬영 및 대회 출품귀표 장착, 모근 채취

3. 참가신청

- 1) 출품신청 : 2007년1월1일~3월10일한(우편송부시 3월 1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본회 홈페이지 <http://www.aiak.or.kr> 한우개량부 게시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 2) 출품회비 : 60만원
- 3) 회비납부기한 : 2007년 3월 10일(기한내 미 입금시 자동 출품취소)
- 4) 회비납부 계좌번호 : 237020-56-274625(농협) 예금주 : 우영묵(입금시 반드시 참가신청자명으로 입금 요망)

4. 평가기준

- 1) 제10회 대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도체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기준 작성
- 2) 출하체중 : 공판장 도착체중이 600kg 이상(미달시 평가는 하되 시상에서 제외)

5. 출품우 입식조사 및 참여농가수

- 1) 입식조사 : 2007년 5월까지 완료
- 2) 참여농가수 확정(참가신청농가 중 회비미납농가는 자동 제외)
 - 가. 12회 대회부터는 참여농가수를 100개조로 제한하여 접수
 - 나. 대회 출품 신청후 출하포기시 1회(차기대회)에 한하여 출품 제한
- 3) 출품우 조사
 - 가. 발육조사 : 2008년 4월~5월(제11회 대회 입식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 문의 : ☎ 02) 588-9301~5 (사)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제1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 신청서

출품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소속 브랜드명		
농장명 (반드시 기재)				
자택주소				
농장주소				
연락처	집		핸드폰 (담당자명)	
	농장 (사무실)		팩스	

사육현황

총 사육두수				밀소 구입 방법				
거세	수	암	계	자가 생산	우시장 구입	축협 알선	경매 구입	기타

보내실 곳

- 우편이용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6-5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우:137-871)
- 팩스이용 : 02-522-0171(팩스 송부 후 02-588-9301~5 접수 확인 요망)
- 홈페이지 : <http://www.aiak.or.kr> 한우개량부 게시판
- 신청마감 : 2007년 3월 10일까지 본회 도착분에 한함

(주)송강GLC 신사옥으로 이전

그동안 저희 (주)송강GLC를 애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송강GLC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고객의 편이 되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세계적인 표준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2007년에는 당사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사세의 확장에 따라 신사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일시 : 2007년 1월 2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비즈동 415호, B114호

전화 : (대)031-776-0780, 031-776-0778 ~ 0781

FAX : 031-776-0782

*기타사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제2의 창업정신으로 더욱 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피콜 제도]를 더욱더 개선하여 고객불편신고센터 직통전화를 개설하였사오니 저희 회사와 거래 중에 혹시 아래 사항의 불편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 1) 직원의 전화 받는 태도가 불친절한 경우
- 2) A/S가 이유없이 제때에 안 되어 불편한 경우
- 3) 당사상품의 수량, 규격, 품질이 원래 약속한 부분과 상이한 경우
- 4)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주문한 상품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어 도착되는 경우
- 5) 기타 불만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고객 불만 신고센터

직통전화번호

031-776-0783 / 011-314-3226 / 011-1718-3081

E-mail : pigland58 @naver.com

(주)송강 G.L.C 사장 원성오 배

협회장동정



송년모임 양재동 at센터)

- ▶ 12월 21일: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사회 참석
- ▶ 12월 22일:축산물등급판정소 이사회

한국홀스타인품평회 평가보고회



본회는 지난 8일 출품농가 및 기자재 전시업체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8, 19일 양일 간 농협중앙회 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된 2006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 조병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설은 열악하나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개량된 소들이 출품되었다고 말하고 세계적인 품평회로 개

량의 활성화를 통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코리아나 세일인데



많은 소들이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하고 출품전 소를 리드하는 리드맨과 소가 하나되지 못한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낙농경영인회 황병익 회장은 지난 역대 대회보다 성대했다고 말하고 내 후년 예산에 실 내 가축품평회장 건립 예산반영이 통과되었음을 농림부 축정과 최염순 서기관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는 불모지에서 눈충 받아가며 이루어 낸 결과이며 이 품평회장은 앞으로 닭, 돼지 등 모든 가축이 사용하는 가축품평회장으로 테마파크와 같은 기능을 겸해서 안성에 지어질 것이며 중축개량의 메카로 새롭게 자리잡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참석한 농가들은 연수원 내 숙박이나 불충분한 전기공급문제, 조사료문제를 지적하였고 지역품평회 입상축을 본선에 출품토록 하지는 건의도 있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토론에 앞서 올해 신설된 베스트 쓰리피 메일과 카운티 허드, 입상축에 대한 시상식과 2006 품평회 포어선정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가축개량기술교육 실시



본회는
지난 12월
28일 경상
대학교 이
정규 교수
를 초빙하
여 직원들

의 가축개량기술의 함양과 최근 축산업의 동향을 교육하여 가축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지는 취지아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이정규 교수는 BIT를 활용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와 개량활용방안에 대한 강의에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국가단위 쇠고기 이력관리 체계방안과 연계하여 DNA지문 검사를 실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전체두수의 DNA지문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혈통 찾기, 교잡우 색출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한중돈수출협의회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종돈 세미나' 개최



한국종
축개량협
회 중돈수
출협의회
(회장 이
병모)를
중심으로

한 말레이시아 중돈시장 개척단은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랜드호텔에서 '한국종

돈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종돈의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

농림부의 종축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경대학교 송훈 박사의 한국의 종돈개량체계 및 유전능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창열 사무관의 한국의 가축방역 및 동물검역체계 ▲한국종축개량협회 장현기 부장의 한국의 양돈 및 종돈산업에 대한 발표가 각각 이어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1백여명의 현지 양돈농가들은 이날 한국종돈의 앞선 유전능력과 강력한 국가방역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종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특히 일부 현지 양돈농가들의 경우 종돈수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요구해와 한국 종돈업계의 말레이시아 진출 가능성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병모 중돈수출협의회장을 단장으로 한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은 3명의 세미나 주제발표자 외에 ▲태흥종축 이석주 대표 ▲설천농장 박한용 대표 ▲문경FINE 이경록 대표 ▲구시월드 임성주 대표 ▲금보육종 장성훈 대표 ▲종축개량협회 백기찬씨 등으로 구성, 말레이시아 방문기간동안(11~15일) 현지 양돈산업 시찰 및 시장 정보 수집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주)SnS사료, 상위 2%를 향한 웃는 목장을 추구하는...



상위 2%를 향한 웃는 목장을 만들기 위하여 한 점 숨김없이 기업을 공개 경영하는 SnS사료를 찾아

회사의 설립목적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들어 보았다.

“목장입장에서 생각하는 회사! 우유처럼 깨끗한 회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02년 12월 4일 홍천(안내역), 신망(홍순빈), 삼손(이재홍), 청성(이명재) 등 4개목장이 참여하여 (주)SnS사료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선진사료 본부장과 고려특수사료에서 전무를 역임한 유재복 대표는 한국낙농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량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젖소의 경제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아래 낙농가가 주인인 회사를 만들었으며, 주주(株主)의 기준도 착유 30두 이상, 305일 1만kg이상 생산하면서 부채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목장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한다.

2005년 11월 4일 서울 웨라톤워커힐 가야금홀에서 “제1회 상위 2%를 향한 웃는 목장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웃으면서 목장을 하지는 강의는 물론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



최하였고, 2006년 9월 13~16일 까지 전체주주가 중국연수를 다녀오는 등 주주와

회사가 하나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SnS사료 주주는 35개 목장으로 개인당 300~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유재복 대표는 한국낙농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낙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용되고 있지 않은 눈을 발로 전용하여 사료작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료공급 방식도 배합사료에서 공동TMR 형태로 전환할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를 300농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즉 300농가를 묶어 우유생산, 사양관리, 체계적인 개량, 정보와 기술의 보급체계를 시스템화하여 목장의 순수익을 높이는데 일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낙농가와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SnS사료의 발전을 기원해 본다.』

우성사료, 제14기 포천여성낙농대학 입학식



5년간 13기 배출한 전문 여성낙농인의 산실로 자리매김 한 우성여성낙농대학

2002년 보령여성낙농대학 입학식을 시작으로 금년 6월 13기 고창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 이달 13일 제14기 여성낙농대학 입학식을 실시하였다. 포천여성회관에서 실시한 이번 행사는 이병순(학생회장/거두리 목장)씨를 비롯한 포천지역 여성 낙농인 43명이 그 대상이다.

여성 낙농인들의 열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급과정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마련하였다.

이날 입학식에는 포천지역 축산을 이끌어가는 리더들(포천축협 양기원 조합장, 서울우유 김종인 지도소장, 아름다운목장 만들기모임 이광용 회장, 포천낙농연합회 배인호 회장, 여성분과위 포천지부 이인에 회장)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입학생들을 축하하며 여성낙농인 리더로 거듭나길 당부하였다.

특별강사로 초빙된 윤여임(조란목장 / 현 농림정책자문위원) 대표의 “미래의 낙농을 책임질 여성낙농인의 역할”에 대한 열강은 입학생들의 공감과 호응으로 화답되었다.

5년 여에 걸쳐 여성낙농대학을 설계하고 지원해온 손근남(우성사료 축우PM)이사는 “낙농인들이 당면한 두 가지 숙제는 첫째, 외국과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우는 것과 둘째, 국내 낙농인들과의 경쟁에서 4천등 내에 드는 것이며, 목장의 두 명의 공동대표가 숙제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성낙농대학의 설립목적 중 하나는 과학적인 목장경영을 실천하여 생존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성낙농대학 졸업식에 이르기까지 5년 여의 여성낙농인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주)우성사료

는 포천지역 여성 낙농인

이를 위하여 우성 축우 전문 서비스팀은 매달 1회의 집체교육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목장방문을 하고 그 달의 숙제를 점검하여 “배워서 소주자”는 교훈이 실천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며 2007년에도 5개 지역에 대해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여성낙농대학의 학사운영을 비롯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유카스, 2006 축산 신기술 “반추우 보호 콜린” 현장 접목 사례 발표



지난 12월 18일(월) 축산연구소(수원) 대강당에서 2006년도 축산 신기술 현

장 접목 사례 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올해 축산연구소 연구 성과 중 생산 현장에 접목되어 상품화에 성공한 10개 분야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날 (주)유카스 이윤교 대표는 “반추위 보호 콜린의 이용”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윤교 대표는 “젖소와 한육우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져 다양한 미량 필수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의 급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반추위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소장까지 이를 수 있도록 특수 코팅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기존의 보호지방을 생산하는 수준의 설비로는 수용성 생리활성 물질을 반추위 내에서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수 공정의 설비가 필요하

다”고 전했다.

특히 반추위 보호 콜린 (상품명:우콜)을 분만 후 20주 동안 일일 두당 40g~80g 을 급여할 경우 젖소의 분만 후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지방간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피크 산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케토시스와 같은 비유 초기 대사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추위 보호 콜린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유 내 콜린 함량을 증가시켜 고기능성 콜린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 국내 대형 유업체와 콜린 우유 개발에 대한 기술협약을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곧 신기술이 축산 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하며, 콜린은 1998년 미국 FDA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이 난 물질로 어린이에게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주며 노인들에게는 퇴행성 기억력 감퇴 증상(치매)을 억제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또 반추위 보호 비타민C (상품명:명품C)를 한우우의 비육 전기에 일일 20g 급여할 경우 근육 내 지방전구세포를 분화시켜 고급육 생산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윤교 대표는 “이러한 특수 코팅 기술을 이용한 다면 반추가축이 생성하는 메탄가스 생성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도쿄 지구 온난화 협약에 서명한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며 이를 통해 사료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손실을 줄여 사료 효율도 향상시킬 수가 있어 일석이조다. 이를 위해 축산연구소와 함께 분야별 산학연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진흥청 그린 바이오사업단 주관 2007년도 기획과제를 제

출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경상대학교, 한우생산단계 DNA 동일성검사 체계구축 워크숍 개최

지난 12월 8일(금)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관 대강의실에서 경상대학교 한우특화겸임연구관사업단(단장 이정규)는 2007년도 생산단계 DNA 시료채취 방법, 동일성검사 방법의 표준화, 생산단계 DNA분석 및 관련정보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경상대학교 한우특화사업단, 영남대한우클러스터사업단, 한경대학교유전정보연구소, 축산연구소,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DNA 동일성검사 마커 적정성 완료보고, 실험실간 DNA 동일성검사 방법 최종보고, 표준화를 위한 1·2차 비교동정실험 최종보고, 지역단위 DNA 분석센터의 지정 운용방안, 생산단계 시료채취 방법 및 최종 DNA정보 활용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정규(경상대) 교수는 ‘사육단계의 시료 채취 방법 및 DNA정보의 활용체계(안)’, 이학교(한경대) 교수는 ‘이력시스템에서의 DNA분석 기법 도입 최적화 및 체계구축 운영방안’, 서강석(축산연구소) 박사는 ‘이력시스템의 국내외 동향분석 및 최적시스템(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공홍식(축산물등급판정소) 박사는 ‘실험실단위 DNA 분석방법에 따른 표준화 수행 사례분석’, 전진태(경상대) 교수는 ‘분석방법의 실험실 표준지침 설정’, 이용욱((주)젠닥스) 박사는 ‘인간 DNA D/B화를 통한 국가 DNA정보 활용사례 및 한우

DNA분석 정보활용을 위한 기술적 설정'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한우사랑 전문가 자문그룹 결성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 '한우사랑 전문가 자문그룹'이 결성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26일 서울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미디어와 유통, 학계, 시민단체, 요리, 연예계 등 각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한우사랑 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과 사업취지 설명에 이어 한우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자유로운 토론회를 통해 자문위원들은 우리 한우산업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한우 이미지 제고와 함께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한우 전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가수 이승철 씨와 최근 공익드라마 주연으로 발탁된 텔런트 안재환 씨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향후 연예인 서포터스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호경 위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한우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사랑 자문그룹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한우자조금 주최의 각종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자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우 믿고 먹을 수 있는 시대 개막

서울 마포에서 한우판매인증 1호점(화우명가) 탄생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7일 서울 마포 소재 '화우명가'에서 한우판매인증 1호점 오픈식을 갖고 한우인증 시대를 개막했다.

이날 남호경 회장은 "오늘 한우판매인증 1호점 오픈은 한우산업의 숙원인 수입 쇠고기와 한우가 확실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우인증점을 통해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 있고 생산자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1호점에 이어 100호점 나아가 1천호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판매인증 1호점 화우명가의 정덕용 사장은 "1호점이 될 수 있었던데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는 진짜 한우만을 판매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만약 한우가 아니면 1억원을 보상하겠다고 강조하고 참고로 화우명가라는 이름은 일본의 와규가 아니라 불화자와 소우자의 '화우'라고...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도 앞으로 이런 한우인

증 식당이 확대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해지역 한우고급육 우수목장의 날 행사 실시



1+등급 이상 67% 달성으로 경쟁력 있는 한우사업 비전 제시
한우마루 제품으로 높은 등급 출현을 실현!!
(주)우성사료 (대표이사 지평은)는 지난 12월

8일 진주시 동방호텔에서 경남지역 한우사양가를 포함한 경상도 각 지역의 한우인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지역 한우고급육 우수목장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해지역 한우사양가를 비롯한 진주, 사천, 하동, 거창, 상주 등 지역에서 100여 명의 한우 사양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 고급육 전문가인 히다리 히사시 박사(오비히로 축산대학)의 “일본 비육우 현황과 고급육 생산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이 있었으며, 이어서 우성사료의 고급육 전용사료인 ‘한우마루’를 급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용백산농장(대표 김석천/남해군) 성적이 소개되었다.

용백산농장(대표 김석천)은 8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총 27두를 출하하여 1등급 88.9%, 1+

등급이상 67%, 육량등급 A등급 56%, C등급 3.7%의 놀라운 성적을 달성하였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강기봉 부장(사진: 우성사료 경남지역 담당)은 용백산농장의 우수한 성적을 높게 평가하고 목장의 수익과 더불어 한미 FTA로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우수목장이 갖는 의미를 시사하며 고급육 생산만이 험난한 축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생존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용백산농장의 김석천 사장은 성적발표 후 피력한 소감에서 “우리 한우사양는 적은 투자와 무조건 싼 사료만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단기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우사업을 마라톤 선수에 비유하며 장기 레이스에서 살아 남으려면 긴 안목을 갖고 한우사업에 매진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우성사료 고급육 전용사료 한우마루 사료와 프로그램 소개」

우성사료 고급육 전용사료 한우마루 사료는 2004년에 시장에 출시하여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호응을 얻었던 뉴파워마블 사료의 업그레이드로 제품 출시 당시 국내 한우시장이 향후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사업의 경쟁력 상실을 예견하였다. 이런 국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급육 생산만이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점을 확신하여 고급육 시장에 요구되는 출하체중의 대형화, 비육장애를 방지하여 높은 후기 섭취량 실현, 최상의 등급관정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고기를 생산하여 농가에 높은 수익증대 확보로 한우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고급육 전용사료 ‘한우마루’ 사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우성사료는 고급육 전용사료 ‘한우마루’ 출시와 함께 에너지 수준의 상향조정은 물론 특수 기용물질을 도입하여 「비육장애방지와 육색보존기간 향상 및 Drip Loss 방지」등 이론적 설계와 최근 출시된 무항생제 신개념을 도입한 스트레스 전용 사료 ‘에코프랜드’와 함께 이러한 신제품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우성현장 서비스패키지를 접목하여 우성사료 한우고급육 ‘한우마루’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DS-UG WIN WIN PACK(고급육 생산 현장 서비스 패키지)」



높은 등급출현율 및 최대의 농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고급육 생산 현장 서비스 패키지 프로그램(DS-UG WIN WIN PACK)은

기존 비육우제품이나 서비스와는 차별화 된다. 여기에는

「DNA 마커 분석을 통한 고급육 자질 판정 및 우성사료만의 차별화되고 과학적인 한우 고급육 프로그램, 최적의 출하시기를 판정하는 초음파 육질판정 그리고 도체등급 결과분석 서비스는 현재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한 한우사육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기술서비스들이다.

이밖에 중앙실험실을 활용하여 조사료 성분분석과 최신편석시스템을 통한 약제 감수성 테스트 등은 농장의 경영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향후 한우산업의 나아갈 방향은 고급육 생산이다. 이를 위해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정

형화된 사육기술과 고급육 프로그램, 높은 등급 출현율이 급선무다. 우성사료는 이러한 한우산업 현실을 반영하여 한우고급육 ‘한우마루’ 고급육 프로그램과 DS-UG PACK(고급육 생산 현장서비스 패키지)을 탄생시키게 되었으며 그 결과 위와 같은 우수목장이 생겨나는 결실을 맺고 있다.

유기축산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

지난 12월 15일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와 한국유기축산연구회가 주최하고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축산신문사가 후원한 유기축산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이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수원) 3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친환경 유기축산기술의 영농 현장 조기정착을 위하여 산·학·관·연 공동으로 연구발전과제개발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안전 유기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제1주제⇒ 친환경 유기축산 정책방향(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제2주제 ⇒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이홍철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 제3주제 ⇒ 유기축산 관련 연구동향(권두중 축산연구소 농업연구관), 제4주제 ⇒ 유기사료의 안정 공급방안(안형진 (주)에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전무), 제5주제 ⇒ 유기축산물의 마케팅 전략(윤광근 (주)에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부장), 제6주제 ⇒ 축종별 유기축산물 인증사례 : 한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의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다.

36개 브랜드 인증 「제3회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발표회」

소비자 시민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인증 대상이 육우와 육계 등 전 축종으로 확산됐다.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획득하려는 브랜드 경영체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현상도 소비자 단체가 인증한다는 면에서 향후 판매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김재욱 소비자 시민모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축산물을 구입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값이 비싸면 좋은 것 아니냐는 응답이 많았으나 이제는 값보다 신뢰를 우선시 하고 있다”면서 “안전과 위생을 전제로 한 축산물에 소비자단체가 쌓아 온 신뢰를 접목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구매패턴을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선정된 우수 축산물브랜드는 한우 15개, 돼지 14개, 육우 2개, 육계 5개 등 총 36개로

이번에 우수축산물브랜드로 선정된 한우 브랜드는 남해화전한우, 대관령한우, 뜨레한우, 물맑은양평개군한우, 지리산순한우, 안성마춤한우, 영주한우, 장수한우, 천하일품, 총체보리한우, 하동솔잎한우, 하이록한우, 함평천지한우, 흥천한우늘푸름, 황성한우 등이다.

또 돼지는 보리먹인돼지가천맥돈, 도드람포크, 돈마루, 동설맥포크, 백두대간포크, 보성희천늬돈, 실라리안소백산썩돈, 의성마늘포크, 제주포크, 포크밸리, 프로포크, 크린포크, 하이포크, 한라산도야지 등이다.

특히 이날 처음 대상이 된 육우 부문에는 (주)금천의 우리보리소, (주)한예들의 농부의 하루가, 육계 부문은 (주)농협 목우촌의 목우촌, 성화식품(주)의 하이슬 치킨, (주)하림의 하림, (주)동우의 동우, (주)마니커의 마니커가 선정됐다.

부루셀라 근절 국제심포지엄 개최

부루셀라의 조기 청정화를 위해서는 거래 및 도축 소의 유통경로와 생산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이력추적시스템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이는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가 지난 19일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개최한 ‘부루셀라 근절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석찬 세균과장은 “부루셀라 근절을 위해서는 양성농장의 역학적 추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소의 귀표제도 등 전산화 등록 등을 통해 개체별 이력추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또 외부 소 구입시 개체 검진 증명서와 음성농장을 확인하는 한편 격리사육 등의 농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생농장은 이동 제한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농가차원의 노력도 함께 강조했다. 1세이상 한우 암소에 대한 전두수 검진도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종합 토론 패널로 참석한 지경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팀장은 “부루셀라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전두수, 전농가에

대한 검진이 단시간내에 시행돼 양성축을 하루 빨리 숨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 대표 패널로 참석한 조득래씨도 "최소 1세이상 한우암소에 대한 전두수 검진을 실시하고 살처분 정책을 유지한다면 부루셀라 청정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강사로 초빙된 마사히사 와타라이 오비히로축산대학 응용수의학 교수는 '일본의 부루셀라 근절 사례'를 통해 "혈청학적 진단과 양성우 도태 등 연간 수백두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루셀라 청정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마사히사 교수는 특히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 이어진 부루셀라 백신접종과 관련된 답변을 통해 "약독성 백신이 부루셀라 예방의 효능을 지닌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백신 접종축과 미접종축을 구별할 수 있는 혈청학적 진단법이 아직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퓨리나 콘비프 우수농장 행사 개최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대표이사 정학상)는 최근 경기도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여명의 사양가가 참석한 가운데 '퓨리나 콘비프 우수농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퓨리나코리아는 '콘비프 슈프림 프로그램'으로 사양해 '우리보리소'로 출하한 육우 379두(안성지역 4개 농장)의 성적을 발표했다.

379두의 출하성적을 살펴보면 1등급이상 출현을 21%, 2등급 53%로 2등급 이상의 등급 출현

율이 74%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도체중은 평균 405kg으로 두당 수령액(장려금 포함)이 410만원이 넘는다. 이를 생체기준으로 계산할 때 5720원/kg을 상회한다.

4개의 우수농장 성적은 △내리농장(대표 박장원) 1등급 21%, 2등급 이상 73% △보촌농장(대표 원승재) 1등급 20%, 2등급 이상 70% △이월농장(대표 한상희) 1등급 16%, 2등급 이상 73% △용원농장(대표 김은수) 1등급 26%, 2등급 이상 83%이다.

퓨리나코리아 연구기술부 김태규 박사는 "이러한 육우의 성적향상이 육우 고급육 생산에 대한 퓨리나의 의지"라며 "콘비프 슈프림 프로그램에서는 육우의 등급향상을 위해 퓨리나의 차별화 된 기술력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편 퓨리나는 이와 함께 육우의 브랜드 개발로 3년 전부터는 (주)금천과 '우리보리소'를 개발해, 2등급이상 출현율 70% 이상으로 품질 고급화를 이룩하는 것은 물론 육우고기 브랜드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또 '우리보리소' 브랜드는 농림부의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위해 (주)금천,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보리육우회(생산농가)가 지난 1년간 3차례의 실사를 통해 생산기반과 유통능력, 품질의 우수성과 농장의 환경에 이르는 노력을 해왔고,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보며, 새로운 목표의식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퓨리나 한우 티엠알 실증 발표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대표이사 정학상)는 최근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문화예술회

관에서 500여명의 한우 사육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퓨리나 한우 티엠알 실증발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주인호 축우관매부장은 초당농장(대표 주기태)의 2006년도 출하성적을 소개하고, 고급육 생산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만이 한우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길이며 그 방안으로 퓨리나 한우 티엠알의 급여를 제시했다.

퓨리나 한우전용 티엠알은 2003년부터 퓨리나가 축산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을 시작해 2005년에 출시했다. 초당농장(한우 거세우 450두)은 출시와 함께 한우 티엠알을 급여해 2006년도 출하성적은 1+등급이상 출현율이 59.1%, 1등급이상 출현율이 89.2%로 우수한 등급을 기록했다. 또 평균 도체중이 409kg으로 높고, A/B등급 출현율도 85.6%라는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초당농장은 이로 인해 올해 지육대금으로 평균 두당 660만원을 받아 전국 한우 거세우 평균 580만원 보다 80만원의 이익을 얻어, 추가사료비 34만원을 감안하고도 두당 46만원의 추가수익을 더 거뒀다.

초당농장 주기태 사장은 “퓨리나 한우 티엠알을 급여하면 등급은 기본이고 후기 섭취량 증가로 출하체중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젠 750kg 출하도 자신 있다”고 밝혔다.

퓨리나는 특히 이번 행사에서 지금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1+등급이상 출현율 70%이상, 도체중 450kg이상에 도전해 한우 두당 1000만원 매출시대를 열어가는 21세기 한우사업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퓨리나는 한우 티엠알 성과와 함께 퓨리나코리아와 전남한우협회가 공동으로 출시하는

설담우(雪談牛) 브랜드에 대해 소개하고,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에서의 설담우 출시기념 시식회를 개최했다.

퓨리나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퓨리나는 한우 티엠알의 우수한 성과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급 한우 브랜드를 소개함으로써 한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선진 양돈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주)선진이 지난 14일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에 양돈산업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주)선진 김대현 이사와 (주)선진한마을 민동기 대표이사는 양돈협회를 방문해 최영열 회장을 만나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양돈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영열 회장은 이날 “선진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해마다 기금을 쾌척,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탁해준 기금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이사와 민동기 대표이사는 이어 “이번에 기탁한 양돈산업 발전기금이 어려운 시기에 보탬이 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선진은 2004년에 양돈산업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으며, 2005년에도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우자조금대의원회 2007년도 사업계획 의결

한우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부충)는 지난 8일 안성 농협연수원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승인한 2007년 한우자조금 세부 사업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대의원회가 의결한 2007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가 거출금 72억원과 정부 지원금 50억원, 이익 잉여금 16억원 등 총 138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소비홍보와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07년 한우자조금 세부계획을 살펴본다.

▲ 소비홍보사업= 총 95억7300만원이 편성된 소비홍보사업은 TV에 집중됐던 사업을 줄이고 PPL 협찬 및 신문·잡지 광고, 온·오프라인 광고 등 간접광고 등을 확대했다. 특히 도단위 소비홍보를 위한 전시차량 구입과 판매 등을 통한 소비촉진 행사가 지난해 비해 3배 가까이 늘어 8억6800만원이 편성됐다.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1억5100만원)과 청소년 한우 맛들이기 사업(5억1천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 교육 및 정보제공= 21억3800만원이 투입된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미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당초 2900만원의 예산을 1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농가 선진화교육(2억9180만원), 한우 경진대회(9200만원) 등의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 조사연구사업= 총 3억4400만원이 편성된 조사연구사업에서는 한우 기원과 역사 등의 예산이 삭감된 반면 한우관련 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한우발전협의회(1억4천만원)가 구성, 운영된다.

한편 대의원총회에서는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확대와 내년도 한우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수매자금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남호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학교급식 확대에 자조금 예산을 사용할 경우 전체 자조금 예산을 투입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수매 또한 마찬가지로이며 자조금은 소비홍보 사업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법적 제약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가격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한우광역브랜드 ‘참예우’ 탄생

전북지역 광역브랜드가 새롭게 출범하여 참예우란 브랜드명을 확정지었다.

전북지역 광역브랜드사업단(단장 강병무 남원축협장)은 지난 22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북한우 광역브랜드명을 참예우로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전북지역은 그동안 각 조합이 수년전부터 독자적인 브랜드사업을 추진해온 경험을 살려 전북지역 7개축협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북지역 조합들은 그동안 중앙회의 광역화 방향에 동참하고 각조합의 기존 브랜드사업 경험을 살려 장단점을 보완하고 통일된 사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북한우의 명성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미 지역본부에 사업단 사무실을 확보하여 사업단장과 실무진을 구성하고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 2007년 초부터 브랜드육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천하제일사료「상상이상 출하경진대회」 실시

천하제일사료(대표 윤 하운)가 2002년부터 3년여간 영남대한우연구소, 일본수의축산대학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2005년 3월에 출시한 '브랜드시리즈 사료'와 '상상이상 한우 고급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상상이상 출하경진대회'를 지난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냉장육 수입 증가와 FTA 협상에 대한 한우농가의 대응전략은 맛있고 고품질의 쇠고기를 생산하여 한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바로 이점을 한우 농가에게 인식시켜 농장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급변에 실시하는 상상이상 출하경진대회 목적으로 참가대상 기준은 첫째, 상상이상 한우 고급육 프로그램을 최소 6개월 이상 적용한 농가여야 하며 둘째, 기간 중 출하두수 최소 20두 이상 이어야 한다.

시상대상자 선정기준은 출하두수 20%, 출하 성적 80%비율로 점수를 산정, 최다 점수 순으로 하여 최고점수 1위~3위, 육질 1+이상 등급 출현율 1위, 평균 육량지수 1위 농가 등 총 5개 부문을 선정해 2007년 3월에 시상을 하고, 부상으로 부부동반 4박5일 일본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상상이상 한우 고급육 프로그램 목표가 한우의 유전적 소질(육질 및 증체량)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육질등급 뿐만 아니라 출하체중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된 배경은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과 확신을 통하여 상상이상 한우 고급육 프로그램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고급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농장의 출하성적 향상으로 농가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aiak News NEWS 해외소식

네덜란드, 1일 4회 대용유 급여시 송아지 증체율 최고

홀스타인 송아지 육성시 대용유를 1일 2회 급여하는 것보다 4회 급여하면 단백질 이용율이 향상되어 증체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네덜란드 낙농학회지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이 연구에는 15주령된 홀스타인 송아지에게 유청을 기본으로 하는 대용유를 1일 1회, 2회, 4회 급여하는 군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1일 4회 급여한 한 군의 송아지가 가소화단백질 이용율이 가장 좋아 증체율이 제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유지를 위한 송아지 대사 에너지 요구량의 1.5~2.5배의 대용유를 급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영국, 초산우 영양상태가 체세포와 유방염 좌우

초산우의 비유 초기 영양상태가 이후 산차의 체세포수와 유방염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영국과 그리스 학자들이 발표하였다.

이들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분만한 영국 스코틀랜드 홀스타인 후리시안 젖소 508두의 주간단위 체중과 체점수 기록을 분석하였는데, 총 1만6천520건의 자료분석결과 초산우 비유초기 체점수가 양호하고 영양상태가 좋은 젖소는 초산은 물론 2산,3산에도 체세포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전적으로도 체점수, 에너지 균형도와 체세포수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일본, 농협 착유24시간이내 생산 '신선우유' 시판

일본내 농협계통 유업체들의 단체인 전국농협유업협회는 착유후 24시간이내 출하하는 '신선도'를 인증한 우유를 개발하여 제품을 차별화 판매촉진을 기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6시간 이내에 집유할 수 있는 현지낙농가의 원유를 100%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 '신선우유'는 현재 60여농가가 회원으로 이중 10여명은 직접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농가에서는 저녁에 착유하는 우유가 유지방이 풍부하고 맛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저녁에 착유한 우유만 가공처리하여 24시간이내 출하하고 있는데, 1리터에 228엔의 가격으로 하루에 3천600여개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협회에서는 신선하고 안심할수 있는 '신선우유'를 확대하여 20여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20억엔의 매출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스라엘, 최대 낙농협동조합 인도 유업계 진출

이스라엘 유제품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계란 유통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낙농식품협동조합인 티누바사가 인도의 낙농업계에 진출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1929년에 설립된 티누바사는 이스라엘내 620

여개 농업정착촌과 협동농장들이 신선우유를 공동판매하기 위해 창업한 협동조합으로 현재는 우유, 계란, 육류등 축산물은 물론 야채와 과일 유통등을 장악하여 연간 매출액이 13억달러에 달하는 이스라엘내 최대 낙농식품협동조합이다.

최근 영국계 투자 자본에 의해 10억달러에 경영권이 민영화되는 과정에 있는 이 조합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인도에 새로운 유가공장을 설립하고 기존의 유가공장을 인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경영권 인수과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내년초 찬반 투표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 소 개량조합 스트로에 바코드 도입

미국내 최대 소 개량협동조합인 쉐렉사이어가 '07년말까지 자체생산하는 모든 인공수정용소 동결정액 스트로에 바코드를 도입하여 소 번식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미 많은 인공수정사들이 개인용단말기(PDA)를 이용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바코드 활용시 시술현장에서 즉시 축주에게 혈통정보는 물론 각종 번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반 젖소목장에서 암소에 무선인식인식(RFID)를 부착하여 개인용단말기를 활용하여 우군을 관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목장관리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현재 한 개체의 정액을 시험생산하고 있

는 바코드 스트로의 색상은 기존 스트로보다 밝은 옅은 초록색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 “한미FTA협상 중단하라”

미 상원의원 7명, 무역대표부 대표와 농무부장관에 서한

뺏조각 쇠고기 문제로 불거진 한·미 간 통상 마찰 문제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여부를 좌우할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 상원 농림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우리 시간으로 14일 수전 슈워브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 마이크 요한슨 자국 농무부장관 앞으로 서신을 보내 “한국과의 뺏조각 쇠고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 농무부가)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을 너무 인정한 나머지 과학적인 원칙들을 저버린 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해줬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부위의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쇠고기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망했다.

이와 관련,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무역협상권과 비준권이 주로 상원에 있고, FTA 협상 시한이 내년 3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미 FTA 협상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요구해온 쇠고기 검역관련 기술협약 내용에 따라 한·미 FTA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유산균 알레르기에 효과

일본의 모리나가유업 식품연구소(식품종합연구소)는 최근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이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역학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역학 조사는 일본 적십자사 와카야마의료센터 이비인후과 팀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연구진은 중학교 1학년생 134명을 대상으로 각종 알레르기 유무,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 섭취 습관, 낫토(納豆)등의 발효 식품 섭취 습관, 혈청 총면역글로불린E(IgE)치와 IgE 항체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의 섭취력이 있는 학생들은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낮았다. 또한 혈청 총 IgE치도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편 낫토의 경우는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의 경우와 같은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모리나가유업에선 “이번 역학 조사는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 프로바이오틱에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과 알레르기 질환 발증엔 장내 세균총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연구 성과의 의의를 설명했다.